

국립무형유산원, 설맞이 행사 다채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영상실 운영 ·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 초성 퀴즈 등 진행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이 설 연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18일 국립무형유산원에 따르면 새롭게 단장한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영상실을 운영한다. 판소리 '수궁가'의 주인공인 토끼와 별주부 이야기를 9m의 대형 화면에서 화려한 미디어아트로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객에게는 토끼가 그려진 엽서도 증정한다.

이와 함께 특별전 '함께 EAT있다'의 주제인 무형문화재 종목을 맞추는 '초성 퀴즈'를 국립무형유산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다. 당첨자 30명에게는 떡 무늬를 찍어내는 떡살 모양의 석고 방향제와 전시 기념품도 증정한다. 무형유산 디지털체험관 영상실은 전화 063-280-1672로, '함께 EAT있다' 특별전 초성 퀴즈

는 전화 063-280-1477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첫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설 연휴 기간 진행된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실현하는 공개행사로, 24일 오전 8시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에서 '위도떡빻놀이'가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자랑스러운 박물관·미술관인 도지사상' 선정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문화 발전 등 공로 관장·학예연구사에 수여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회장 박현수)에서 선정하는 '2022 자랑스러운 박물관·미술관인 도지사상'에 교통미술관 정하나 부관장,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박형제 학예연구사, 원광대학교박물관 박승기 학예연구사가 각각 선정됐다고 전했다. 또 협의회장상에는 최복미술관 양정은 학예연구사, 백제왕궁박물관 이은석 학예연구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자랑스러운 박물관·미술관인 상'은 지난 2017년부터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에 근무하는 관장 및 학예연구사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2022년 도지사상을 수상한 정하나 부관장은 교통미술관에 재직 중이며, 다양한 전시 사업을 총괄하며 지역 예술분야 발전한 공을 인정받았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박형제 학예연구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시가 지닌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박물관 특별전시 진행으로 관람객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 박승기 학예연구사는 어려운 대학박물관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전시 및 교육진행으로 박물관 위상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현수 회장은 "지역소멸 시대에 지역문화 발전 및 관람객 유입 등 다양한 기회로 문화전북 발전에 노력하는 수많은 박물관 및 미술관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영화제작사 하세, 영화 공동제작 협약

인기 예능 영화화 한 'GOAL 때리는 그대들'... 4월부터 군산 배경 오픈로케이션 촬영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7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영화제작사 (주)하세와 인기 예능을 영화화 한 'GOAL 때리는 그대들' 공동제작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호원대 산학협력단 정의봉 단장, K-컬처테크융합원의 최부현 원장, K-POP학과 신연아 교수, 공연미디어학부 조항민 교수와 윤학렬 감독 및 제작사 (주)하세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7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영화제작사 (주)하세와 인기 예능을 영화화 한 'GOAL 때리는 그대들' 공동제작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영화 'GOAL(골)때리는 그대들(이하 '골때니')'은 영화 '지렁이' 감독을 맡은 윤학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꿈과 희망없이 살아가던 여성들이 풋살을 통해 사회의 차별과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한 사람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로, 그리고 딸로 성장하는 감동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다. '친구', '부사부일체'의 주연 배우 정은택을 비롯한 연기력 검증된 한류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하며, 군산을 배경으로 4월부터 2~3개월여 오픈로케이션 촬영을 할 예정이다.

'골때니' 촬영을 위해 학교 내 풋살장 대어를 시작으로 오디션 진행해 발탁된 호원대 공연미디어학과 재학생이 배우로 출연하고, 실용음악학부 및 K-POP학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영화음악 OST 작업에 참여하며 공동 후원 협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영화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의봉 단장은 "이 작품이 코로나 펜데믹으로 침체된 군산의 지역경제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원대학교가 군산과 제작사의 상생 프로젝트에 있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화 제작사와의 협업이 호원대와 군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학렬 감독은 "군산에 위치한 예술명문 호원대학교와 협력을 맺게 돼 기쁘다"며 "회복 및 치유의 스토리를 담은 이 영화를 완성하는데 있어 호원대학교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복 원복 도입 어린이집·유치원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30~31일 양일간 한복 원복을 도입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살한복 여든까지
한복 원복 도입 어린이집·유치원 모집

한복 원복을 도입할 전주시내 소재지를 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023. 1. 30(화) ~ 1. 31(수) 내비행통신

문의: 063-281-1574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 참고

한복 원복은 지난해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한복 원복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주소지가 전주에 소재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네이버 폼을 통해 하면 된다.

한복 원복은 올 해 처음으로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시범 보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유치원 당 하복과 동복 한 세트 기준 최대 40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복 원복 지원기관 선정은 1월 31일까지 접수 후 2월 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직접 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김도영 원장은 "어렸을 때부터 한복이 대한민국의 고유의 의복임을 일깨워주는 일은 한민

족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또 여타 교육 못지않은 소중한 가치라 생각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장은성 기자

'몽연-서동의 꽃' 출연 배우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이하 브랜드공연) 출연 배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2월 1~8일까지 이메일(jbct@

jb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소리·무용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공연 활동 경력자이며, 공연에 연습에 참여할 수 있는 소리 2명, 무용 19명 등 총 21명을 선발한다. 심사는 1차 서류 전형과 2차 실기 오디션으로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2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실기 오디션에서 소리 분야는 자유곡(판소리 5바탕 중 자유선택 또는 창작곡), 무용 분야는 창작무를 심사하고, 공통으로 특기와 태도를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공연기획추진단(063-230-742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설명회 가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1~13일 3일간 도내 예술가 및 예술단체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되는 만큼 많은 도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참여해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간담회나 공청회 등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설명회는 2023년 개편사항, 공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장르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류상록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

행되는 만큼 많은 도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참여해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간담회나 공청회 등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접수는 오는 25일까지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진행하며,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 공고문을 통해 1개 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